

日本 宗存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huzon Edition in Japan

曹 炯 鎭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宗存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宗存版의 概要 | 6. 宗存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宗存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7. 結 論 |
| 4. 宗存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초 록>

- (1) 宗存版이란 宗存이 京都 常明寺에서 1613년부터 1624까지 12년간, 木活字로 인쇄한 140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여 중상급이다.
-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빼돌어진 문자가 다소 있고, 墨色 濃淡이 균일하지 못한 엽이 보인다. 광곽 꼭지점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이중 인출 등이 적지 않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일본 종존판,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ABSTRACT>

- (1) The Shuzon edition refers to 140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s by Shuzon in Zomyoji, Kyoto for 12 years between 1613 and 1624.
-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o some extent,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and near upper-middle grade.
-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yet shows some uneven incidences.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in some pages, the tone of ink color is not consistent. The four edges of the page frame substantially splayed apart. Some of the corrections are not precise. The technical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frequent spreads of chinese ink and intermittent double printing. The technical quality is lower-middle grade.
-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Shuzon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본 연구는 2016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7년 6월 11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6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7일

1. 緒 論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宗存이 京都市 北野의 經王堂에 있는 常明寺에서 간행한 고허자본, 즉 宗存版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기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허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판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종존판의 개요·활자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¹⁾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종존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활자본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경우, 연구자에 따라 관점과 안목의 차이에 의하여 그 평가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연구자가 유사한 기술 수준의 여러 활자본을 분석할 경우, 분석할 때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분석 결과와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연구자가 동일한 판본을 시차를 두어 여러 번 분석할지라도, 그 평가 결과가 일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이 되는 활자본의 기술 수준은 변함이 없는데, 연구자의 안목 또는 분석 시기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내용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 기술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수치화된 표준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표준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2. 宗存版의 概要²⁾

2.1 宗存版의 定義

2.1.1 宗存版의 刊行 主體 및 관련 인물

(1) 宗存

일본 불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比叡山 延曆寺의 최대 법난인 元龜 2년(1571) 9월의 대화재 이후, 재건에 일익을 담당한 天台僧으로 宗存이라는 인물이 있다. 宗存에 대하여는 생몰년도 알 수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大藏目錄』·『神祇講式』·『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등의 간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天台宗의 沙門, 계급은 權大乘都, 綱位는 法印, 坊戶는 聖乘坊이다. 伊歲 太神宮의 內院이었던 高日山 法樂院 常明寺의 別當職, 즉 住職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³⁾ 志摩國의 國分寺에서 출가하였으며, 훗날 元和 4년(1618) 江戸城 紅葉山에서 東照廟가 낙성되자, 天海 正遷宮의 스승이 되었다.

宗存이 일본 불교의 母山인 比叡山에서 불경 부활의 신호탄으로 木活字를 제작하여 宗存版을 간행한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깊이 수용한 일본인의 마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宗存版 목활자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는 성격만이 아니고, 比叡山의 법난을 극복하려는 宗存의 의지의 결정이며, 이로써 宗存은 일거에 주목을 받는다.

宗存은 일본의 인쇄발달사에서도 목활자를 제작하여 『一切經』(『大藏經』)의 간행을 발원하고 많은 불경을 간행하여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같은 宗存의 활자본 불경류의 개관 사업은 같은 天台宗인 叡山에서의 왕성한 활자 개관의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宗存版 또는 北野經王堂版·常明寺版⁴⁾이라고도 칭한다.

(2) 神力

宗存의 목활자를 이용한 불경류 개관사업에는 여러 협력자가 있었다. 宗存版 『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天地八陽神呪經』·『九重守』 등의 권말 간기에 神力가 등장한다. 『法華玄義科文』의 권3之1(元和4년2월중순)·권5之2(元和4년3월중순)·권8(元和4년2월하순)에, 『法華文句科解』

2)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查報告書(本編)』, 滋賀縣教育委員會: 大津, 2000. 6-32, 218-272.; 三井田妙久, “宗存版木活字について,” 『叡山學院研究紀要』 23(2001. 3), 67-83.; 齋藤彦松, “宗存版の研究,” 『同志社大學圖書館學會』 3(1960. 12), 5-26.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3) 常明寺는 延曆寺 - 寬永寺 - 雲蓋院 - 常明寺 - 円鏡寺와의 본말 관계에 있다.

4) 神力가 간행한 『天地八陽神呪經』(1첩)의 권말 간기 “惟嗚元和四戊午曆二月中旬於西京, 北野經王堂常明寺神力令摺刊之畢”에 의하여 엄격히 구분하면, 이는 宗存版이 아닌 常明寺版이라 할 수 있다.

의 권2之2(元和4년3월17일) · 권3之1(元和4년3월중순) · 권3之2(元和4년2월중순) · 권4之2(元和4년3월17일) · 권5之1(元和4년2월중순) · 권5之2(元和4년3월중순) · 권6之1(元和3년3월중순) · 권7之1(元和4년3월중순) · 권7之2(元和4년3월중순) · 권8之1(元和4년3월상순) · 권10之2(元和4년3월중순)에, 『天地八陽神呪經』(1권)(元和4년) 등에 각각 3회 · 11회 · 1회씩 모두 15회 등장하는데 간행자 역할이다. 元和 3년(1617)은 3월 중순 1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元和 4년이다. 元和 4년을 월별로 보면 2월 중순이 4회, 2월 하순이 1회, 3월 상순이 1회, 3월 17일이 2회, 3월 중순이 6회로, 원화 4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1개월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九重守』의 간기에는 願主로 1회 등장하는데, 간년이 없어 구체적인 간행 일자를 알 수 없지만, 宗存版 『九重守』의 여러 후쇄본 중에 선명히 인쇄된 대형의 초쇄본이 元和 4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宗存과 神力은 어떤 관계인가? 이들은 간행자로서 『法華玄義科文』 · 『法華文句科解』의 7종류로 비슷하게 표현된 간기에 교대로 각각 18회와 14회씩 모두 32회 등장한다. 宗存은 대부분이 元和 3년이고, 元和 4년은 1회뿐이다. 이로 미루어 宗存은 주지이며, 神力은 그의 제자로서 宗存이 元和 4년부터 元和 5년(1619) 사이 약 1년여 간 江戸城에 출타한 기간 동안 대리인으로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의 간기에 宗存은 보이지 않고 神力만 보이기 때문이다.

(3) 吉野入道義齋와 西田勝兵衛尉

慶長 18년(1613) 간행한 『大藏目錄』(3권)의 간기에 “當施主 開板 吉野入道義齋 西田勝兵衛尉”의 2명이 있다. 吉野入道義齋는 宗存版 외에 寛永 원년(1624)에 『城西聯句』(별칭 『九千句』)를, 寛永 2년(1625)에 『大學中庸抄』를 간행하였고, 元和年間(1615-1623)本⁵⁾으로 추정되는 『延壽撮要』의 간행자인 義齋道啓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義齋는 출판업자로서 西田勝兵衛尉와 함께 宗存版 초기에 개판 작업을 담당하다가 元和 경에 宗存에게 인계하고 자기 개판 사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西田勝兵衛尉는 寛永년간(1624-1643)부터 寛文년간(1661-1672)에 京都 二條 소재 妙滿寺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였으므로, 宗存版을 아마도 이 서점을 통하여 판매했을 듯하다. 이 서점은 慶長 17년(1612)에 宗存이 『大藏目錄』 등 21점의 寫經을 행했던 二條御幸町이다. 즉 西田勝兵衛尉의 집이었음을 의미한다.

(4) 正直와 台林

宗存版 간행에 吉野와 西田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正直와 台林이 있다. 『法華文句科解』 권10之2의 元和 4년 간기 말미에 “摺寫役人上州住正直 工匠台林”이 있다. 正直는 “役人”이라는 호칭이 있으므로 摺寫 장인으로서 직접 인쇄를 담당했던 관리(공무원)로, 종존판 『一切經』의

5) 天理大學圖書館은 慶長年間으로 추정하였다.

“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관판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私版으로 출발한 宗存版이 1년 후 後陽成院과 관련되면서 官版 성격을 갖게 되고, 기술면을 포함한 개판자로서 吉野와 西田를 대신하여 正直와 台林이 등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台林은 『九重守』의 간기에도 등장하는 중국에서 온 彫字工이다. 崇傳의 『本光國師日記』에도 등장한다. 伏見版에서도 목활자 조성을 담당한 듯 伏見版 목활자에 “台”라고 묵서된 것은 “台林”으로 추정된다. 台林은 『謠抄』 간행 외에 德川家康가 간행한 慶長 20년(=元和 원년, 1615)의 『大藏一覽』, 元和 2년(1616)의 『群書治要』 등 駿河版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駿河版은 元和 2년, 家康의 사후에 중단되어 台林도 京都로 돌아가 宗存版의 인쇄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元和 4년 宗存版 간기에 등장한다. 台林은 幕府에 고용된 장인으로서 宗存版에도 참여하였던 점은 正直와 함께 宗存版의 성격을 시사한다. 이처럼 台林은 당대의 일류 인쇄기술자로서 宗存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正直와 台林은 元和 4년경까지는 宗存版의 官版적 성격의 작업에는 참여하다가 後陽成院 사후, 宗存版에서 관판적 색채가 옅어지면서 참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5) 玄作齋와 木村久助

『法華文句科解』의 권2之2, 神力의 元和 4년 간기 말미에 “手傳(조수)玄作齋”와 권4之3, 권말에 “手傳木村久助”가 있다. 玄作齋는 圓光寺 소장 伏見版 목활자의 묵서 “亥”와 역지로 연결시켜 보면 玄일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어서 검토를 요한다. 木村久助는 元和 4년 간행한 『正因果集』의 흑구에도 있는데, 인쇄 조수로 보인다. 伏見版 목활자에도 彫字工의 이름을 “久”라고 쓴 것이 3개 보이는데, 이는 木村久助가 아닌가 한다. 즉 玄作齋와 木村久助는 宗存보다는 神力에 가까운 匠人으로 추정된다.

(6) 기타

宗存版에 달려 있는 판목의 이면과 측면 등에 묵서되어 있는 이름으로 茂助・助藏・久保田 3인이 있는데, 판목의 조각공으로 추정된다.

2.1.2 宗存版의 刊行 時期 및 後陽成院과의 관계

지금까지 알려진 宗存版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慶長 18년으로, 정월의 『一切經開板勸進狀』과 9월의 『大藏目錄』(3권)이다. 『一切經開板勸進狀』은 『一切經』의 발원문이고, 『大藏目錄』은 『一切經』의 총목록이다. 『一切經開板勸進狀』의 간기는 다음과 같다.

伊勢太神宮 一切經 本願 常明寺
慶長十八_丑年正月吉日 法印宗存 敬白

『大藏目錄』의 간기는 다음과 같다.

戊申年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一代藏經 開梓摺寫 報佛恩德 結緣衆生
同證佛果 二世安樂 乃至法界 平等利益
大本願伊勢聖乘坊宗存(花押)
慶長十八 癸丑年九月吉日 於洛陽梓之
當施主
開版 吉野入道義齋
西田勝兵衛尉

이로 미루어 宗存이 개인 신분으로 慶長 17년에 常明寺에서 『一切經』 개판을 발원하여 『一切經開板勸進狀』을 작성하고, 늦어도 이듬해(1613년) 정월에는 간행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宗存이 직접 목활자 제작과 동시에 『一切經』 간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慶長 19년(1614)부터 元和 3년까지는 宗存版 『一切經』 81종 중 68종의 “甲寅歲”(慶長 19년), “乙卯歲”(元和 원년), “丁巳歲”(元和 3년) 등의 간년이 있는 판본에는 宗存의 이름 대신 “大日本國大藏都監奉, 勅彫造”가 있어서 천황의 명을 받들었음을 명시하고 있다.⁶⁾ 그렇다면 이 “勅”은 누구의 명인가? 당시에는 천황위를 양위한 後陽成院(1571-1617, 재위 1586-1611)과 後水尾天皇(1596-1680, 재위 1611-1629)가 있었다. 그런데 常明寺가 後陽成院政 6년 기간 중에 하사받은 것으로 보이는 額字 “兩大神宮內院”이 後陽成 天皇의 친필이고, “奉, 勅彫造”가 慶長 19년부터 元和 3년까지의 『一切經』에 한할 뿐, 그 전후의 간행물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서 元和 3년에 崩한 後陽成院의 명일 것이다. 즉 당시 25년간 재위하다가 慶長 16년(1611) 3월 27일 後水尾 天皇에 양위한 後陽成 天皇은 慶長 18년 宗存의 『一切經』 간행 사실을 접하여 慶長 19년부터 元和 3년 8월 26일 崩까지 後陽成院으로서 宗存의 『一切經』 간행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慶長 19년부터 院崩의 元和 3년 사이의 『一切經』 간기에 “奉, 勅彫造”라 한 것이다.⁷⁾ 이는 後水尾 天皇가 재위 중이며 院崩 이후인 元和 7년(1621) 5월 간행한 『消除疫病神呪經』의 간기 “元和七 辛酉年五月吉祥日, 伊勢大神宮一切經本願常明寺宗存敬梓”에 “奉, 勅彫造”가 없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後陽成院의 붕으로 인하여 宗存과 後陽成院의 관계는 끝나고, 이후 宗存은 천태종 불경 간행에 주력하여 『一切經』의 간행은 寬永 원년까지 이어졌다.

일본에서 『一切經』 활자본은 叡山版 목활자로 시작하여 宗存版을 지나 天海에 이르러 慶安元年(1648)에 완성되었다. 즉 宗存版은 叡山版의 불경 간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교 역사 1000년

6) 宗存의 이름이 있는 『大藏目錄』의 “戊申年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와 『法顯傳』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는 저본을 따른 것으로 宗存版의 “奉, 勅彫造”가 아니다.

7) 불서류 및 기타류는 院崩 이전에도 後陽成院의 지원 없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예: 『摩訶止觀科解』(일부)·『神祇講式』·『顯戒論』 등.

의 현안이던 『一切經』의 간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로써 활자판으로 『一切經』 간행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天海版 『一切經』의 완성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다.

일본은 江戸시대(1603-1867) 초기, 즉 17세기에 32년⁸⁾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經律論과 그 해설서인 疏 등으로 대략 1,500부 6~7,000권에 이르는 『一切經』를 3회나 간행하였다.

- 1) 宗存版 『一切經』: 慶長 18년부터 寬永 원년에 걸쳐서 天台宗 산하인 京都 北野 天滿宮 經王堂을 거점으로 목활자 인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발원주는 聖乘坊 宗存, 주요 저본은 고려판 『재조대장경』, 현존 목활자는 약 164,000개(인쇄 부속품, 그림 판목 합쳐서 174,261점), 국가지정중요문화재, 현재 延曆寺 소장.
- 2) 天海版 『一切經』: 寬永 14년(1637)부터 天海 입적 5년 후인 慶安 원년(1648)까지 江戸 上野 東叡山 寬永寺를 거점으로 목활자로 1,453부 6,322권을 간행하였다. 발원주는 南光坊 天海(향년 108세), 주요 저본은 南宋 思溪版, 일부는 元 杭州版과 明 萬曆版, 현존 목활자는 약 20여만 개, 현재 寬永寺 소장.
- 3) 鐵眼版(黃檗版) 『一切經』: 寬文 9년(1669)부터 延寶 6년(1676)까지 京都 宇治 萬福寺에서 목판으로 1,650부 6,950권을 간행하여 後水尾 上皇에 봉헌하였다. 일설에는 明版 正・續 또는 續藏組와 같은 1,618부 7,334권. 발원주는 鐵眼 道光(1630-1682), 주요 저본은 明 萬曆本, 책판 총수 48,275매, 국가지정중요문화재, 현재 萬福寺 寶藏院 소장.

이같은 宗存版의 간행은 『法苑珠林』 권100의 간기 “伊勢太神宮一切經本願常明寺宗存敬梓, 寬永元年^{甲子}十二月二十七日”에서 볼 수 있듯이 寬永 원년 말이 마지막이다. 이로써 宗存이 慶長 18년부터 시작한 일본 최초의 목활자본 『一切經』의 간행은 寬永 원년까지 12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난다.

2.1.3 宗存版의 刊行 地域

宗存이 거주하면서 宗存版을 간행한 장소는 어디인가? 그 간행 장소를 알 수 있는 간기가 있는 宗存版은 다음과 같다.

- 1) 慶長 18년의 『大藏目錄』, “… 於洛陽梓之 …”.
- 2) 元和 원년의 『常明寺緣起』, “右摺寫古本緣起奉脩神明法樂也, 一切經本願高日山法樂院常明寺, 元和元年乙卯十一月吉日 宗存法印”.

8) 이는 실제 간행에 소요된 기간이다. 중간의 공백 기간 32년을 합하면 64년이다.

- 3) 元和 원년의 『神祇講式』, “伊勢太神宮 常明寺 高日山 法樂院, 元和元年乙卯十一月吉日法印 宗存敬梓”.
- 4) 元和 4년의 『天地八陽神呪經』, “惟皆元和四^{戊午}曆二月中旬於西京, 北野經王堂常明寺神力 令摺刊之畢”.

이에 의하면 현재의 京都 시내 上京區 北野의 北野神社 내의 經王堂에 있는 常明寺로 판단된다. 北野 經王堂은 足利義滿이 應永 8년(1401)에 北野神社 경내에 건립한 것으로 願成就寺라고도 칭한다. 天文 6년(1537)에 實町 幕府의 쇠퇴와 함께 폐사되었다가, 豊臣秀賴에 의하여 慶長 7년(1602)부터 11년(1606)까지의 5년간 중수, 慶長 12년(1607) 11월 大日塔가 재건되었다. 寛文 9년부터 10년(1670) 사이에 大報恩寺 千本釋迦堂 수리 전용재로 쓰이면서 소멸되었다. 常明寺는 天台宗 伊勢國 度會郡 山田, 高日山 法樂院 常明寺인데 明治 초기까지 현존하다가 지금은 폐사되었다. 따라서 經王堂와 常明寺는 현존하지 않는다.

宗存版 간행 장소인 經王堂는 宗存版이 慶長 18년에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豊臣秀賴가 재건한 그 經王堂이다. 당시 宗存은 常明寺에 기거하면서 神宮에 가깝기 때문에 伊勢 黃太神宮에서 『一切經』 봉헌 개관을 발원하고 經王堂의 관리자인 養命坊로부터 經王堂의 사용을 승인받아서 宗存版을 개관하였다.

2.1.4 宗存版의 刊行 手段

宗存版의 판본을 직관하면 예외 없이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宗存版과 관련된 현존 유물은 목활자, 그림 인쇄용 판목(繪版木), 조판용구 등이 있는데, 이들은 宗存이 소속된 滋賀縣 大津市 比叡山 延曆寺의 天海 僧上 사당인 慈眼堂에 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慈眼堂는 天海의 祠堂이므로, 여기에 소장된 목활자를 天海 僧正이 대장경을 간행했던 天海版 목활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⁹⁾

2.2 宗存版의 數量과 版式

2.2.1 宗存版의 數量

宗存版의 『一切經』가 모두 몇 종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9) 天海版 목활자는 東京都 上野公園 내 天台宗 寛永寺에 현존하고 있는데, 宗存版과는 서체, 크기 등이 전혀 다르다. 天海版本과 일치한다.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宗存版은 「一切經」 81종(간기에 “奉勅彫造”가 있는 68종,¹⁰⁾ “一切經” 또는 “本願”이 있는 13종¹¹⁾) · 불서류 및 기타류 10종¹²⁾ · 무간기본 49종 등 모두 140종으로 다음의 목록과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14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2종이다.

<宗存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¹³⁾	비고
1	迦葉結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2	迦葉赴佛般涅槃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3	堅固女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4	經律異相	50-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5	高僧傳	6-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6	過去現在因果經	4-	②元和7년(1621)宗存版木活字印本	
7	觀無量壽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8	觀普賢菩薩行法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9	九重守	1-1	②無刊年宗存版木活字印本	
10	勸發諸王要偈	1-1	①元和 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6)
11	金剛般若波羅密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2	金光明經	4-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3	金光明最勝王經	10-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4	內身觀章句經	1-1	①元和 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15	老女人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2)三Ab27 ¹⁴⁾
16	檀特羅麻油述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7	大吉義神呪經	1-1	②元和7년(1621)宗存版木活字印本	
18	大唐西域求法高僧傳	2-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19	大般若波羅蜜多經	600-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20	大般涅槃經	40-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21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22	大普賢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23	大毘遮那成佛神變加持經	7-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10) <宗存版 古活字本 目錄>의 판본사항 앞에 “①”로 표시.

11) <宗存版 古活字本 目錄>의 판본사항 앞에 “②”로 표시.

12) <宗存版 古活字本 目錄>의 판본사항 앞에 “③”으로 표시.

13)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4) 동양문고 소장본은 「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4종이 1책으로 합철되어 있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¹³⁾	비고
24	大乘伽耶山頂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25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2)三Ab27
26	大乘流轉諸有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27	大意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28	大藏目錄	3-3	②慶長18년(1613)宗存版本活字印本	(3)子194-17
29	大七寶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30	大荒神施與福德圓滿陀羅尼經	1-1	③元和6년(1620)宗存版本活字印本	
31	德光太子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32	德護長者經	2-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33	摩訶止觀科解	10-26	③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4)405-2 (6)
34	摩尼羅剎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35	馬鳴菩薩傳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36	曼珠室利菩薩呪藏中一字呪王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37	牟利曼陀羅住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38	妙法蓮華經抄	1-1	②元和7년(1621)宗存版本活字印本	
39	無垢賢女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40	無量壽經	2-2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41	無量義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6)
42	無量義經卷釋	1-1	②元和7년(1621)宗存版本活字印本	
43	無明羅剎集	3-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44	文殊師利問菩提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45	文殊師利發願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46	文殊師利五字瑜伽根本秘密大智神呪大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
47	般泥洹後灌臘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48	般若心經秘鍵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49	梵網經	2-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50	法觀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51	法句譬喻經	4-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6)
52	法苑珠林	100-43	②元和7-寬永원년(1621-1624)宗存版本活字印本	(4)556-109 (5)31-12-342
53	法賢傳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54	法華經品釋	1-1	②元和7년 (1621)宗存版本活字印本	
55	法華文句科解	10-23	③元和3-4년(1617-1618)宗存版本活字印本	(4)556-138
56	法華玄義科文	10-17	③元和3-4년(1617-1618)宗存版本活字印本	(4)556-137
57	菩薩呵色欲法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6)
58	腹中女聽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59	付法藏因緣傳	6-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60	佛臨涅槃記法住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61	佛爲海龍王說法印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62	不增不減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2)三Ab33
63	佛治身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6)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¹³⁾	비고
64	四部錄	1-1	③元和7년(1621)宗存版木活字印本	(3)
65	舍衛國王夢見十事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1)WA7-221
66	思惟略要法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67	師子素駄婆王斷肉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68	師子莊嚴王菩薩請問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69	四品學法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6)
70	三慧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71	象頭精舍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72	常明寺緣起	1-1	②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73	商主天子所問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74	逝童子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75	善惡因果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76	禪要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77	小道地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78	蘇悉地羯羅供養法	3-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79	消除疫病神呪經	1-1	②元和7년(1621)宗存版木活字印本	
80	蘇婆呼童子請問經	3-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81	首楞嚴三昧經	2-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
82	壽生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83	受持七佛名號所生功德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84	神僧傳	9-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85	申日兒本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2)三Ab27
86	神祇講式	1-1	③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87	十二佛名神呪校量功德除障減罪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88	十二遊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89	阿難七夢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90	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91	阿彌陀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92	阿毘曇五法行徑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93	阿吒婆狗鬼神大將上佛陀羅尼神呪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94	阿含口解十二因緣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95	安宅神呪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96	如意虛空藏菩薩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
97	延命地藏菩薩記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98	預修十王生七經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99	五味禪	1-1	無刊記宗存版木活字印本	
100	龍樹菩薩傳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101	右繞佛塔功德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102	月光童子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木活字印本	(2)三Ab27
103	有德女所問大乘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104	維摩詰經	2-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木活字印本	
105	六菩薩亦當誦持經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木活字印本	(6)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¹³⁾	비고
106	六字大陀羅尼呪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07	離垢慧菩薩所問禮佛法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108	一百五十讚佛頌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109	一切經開板勸進狀	1-1	②慶長18년(1613)宗存版本活字印本	일명 「願文」
110	一切經音義	100-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11	一切如來金剛壽命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
112	慈惠大師講式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13	寂照神變三摩地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114	正因果集	3-1	③元和4년(1618)宗存版本活字印本	(1)WA7-74
115	諸經要集	20-20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
116	諸法最上王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117	諸佛心陀羅尼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6)
118	提婆菩薩傳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119	造塔功德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0	呪目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1	呪小兒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2	呪時氣病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3	呪齒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4	辰弧王菩薩一字秘密速成就戒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25	讚觀世音菩薩頌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126	撰集三藏及雜藏傳	1-1	①元和원년(1615)宗存版本活字印本	
127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慈心陀羅尼	1-1	③元和8년(1622)宗存版本活字印本	
128	天地八陽神呪經	1-1	③元和4년(1618)宗存版本活字印本	
129	天台四教儀	1-1	②元和9년(1623)宗存版本活字印本	
130	清淨觀世音普賢陀羅尼經	1-1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131	治意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6)
132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4-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33	(源信)枕雙紙	1-1	②元和7년(1621)宗存版本活字印本	(2)三Ab8
134	稱讚如來功德神呪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35	破邪論	2-2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7)p.93
136	八部佛名經	1-1	①慶長19년(1614)宗存版本活字印本	
137	辟除賊害呪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138	顯戒論	3-3	③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1)WA7-223 (5)31-18-357
139	玄師毘陀所說神呪經	1-1 ¹⁵⁾	①元和3년(1617)宗存版本活字印本	(6)余丙183
140	護諸童子陀羅尼經	1-1	無刊記宗存版本活字印本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大谷大學圖書館(京都), (7) = 弘文莊古活字版目錄¹⁶⁾

15) 大谷大學圖書館은 3卷 1帖이라 하였다. 大谷大學圖書館編, 『大谷大學圖書館所藏貴重書善本圖錄: 佛書篇』, 大谷大學: 京都, 1998.

16) 이는 판매품목이므로 해당 판본의 현재 소재지는 바뀌었을 수 있다.

이들의 간행 년도 별 수량은 慶長 18년에 2종, 19년에 26종, 20년 = 元和 원년에 25종, 3년에 24종, 4년에 2종, 6년에 1종, 7년에 8종, 9년에 1종, 간년미상이 50종¹⁷⁾ 등이다. 간년미상 50종의 간행 년도는 慶長 19년, 20년 = 元和 원년, 元和 3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문이 완전히 같은 판이라는 점에 근거하면, 이 3년간 또는 그 직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法苑珠林』 100권의 각 간기를 살펴보면 권차를 따라서 차례로 간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元和 2년과 5년에는 宗存版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元和 2년은 徳川家康의 駿河版 간행에 동원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며, 元和 5년은 江戸城에 출타하여 인쇄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크기는 1권에서 600권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5권 이상이 14종에 불과할 만큼 소형의 저술이 많다. 대부분이 1권 1책인데, 소형 불경은 여러 권을 1책으로 합치기도 하였다.

2.2.2 宗存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자 14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첩본 형식의 『一切經』와 선장본 형식의 불서류 및 기타류로 대별된다.¹⁸⁾ 단 『法苑珠林』과 『(源信)枕雙紙』의 판식은 불서류 및 기타류를 따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9종(3종은 합철), 없는 경우가 2종이다. 표지를 개장하여 제침을 목판으로 인쇄하거나 목서한 경우도 있고(『法苑珠林』), 제침을 개장한 경우도 있으며(『不增不減經』), 표지만 개장하고 제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正因果集』).

(2) 匡廓 형식

광곽이 없는 경우가 7종(모두 『一切經』), 사주단변이 5종(『一切經』 중 『法苑珠林』과 『(源信)枕雙紙』, 불서류 및 기타류 3종), 상변과 좌우 변란은 단변이면서 하변은 쌍변인 경우가 불서류 및 기타류 2종(『正因果集』·『顯戒論』)이 있다. 사주쌍변 또는 좌우쌍변은 없다.¹⁹⁾

(3) 界線 유무

14종 모두 계선이 없다.

17) 간년미상 50종은 무간기본 49종과 無刊年本 『九重守』이다.

18) 예외적으로 『九重守』 1종은 권자본이다.

19) 線裝本은 天台典籍이 대부분인데, 橫本도 있고 서미에 科文이 있는 大型本도 있다. 광곽은 사주단변, 상하쌍변-좌우단변, 上左右單邊-下雙邊의 3종류가 있다.

(4) 行數

「一切經」는 절첩 한 엽이 5행인데, 「法苑珠林」과 「(源信)枕雙紙」는 불서류 및 기타류와 같은 판식을 취하여 10행이다. 불서류 및 기타류는 9행이 2종, 10행이 3종이다.

(5) 字數

「一切經」는 14자, 17자, 19자로 일정하지 않다. 심지어 「舍衛國王夢見十事經」 중 「夢見十事經」는 14자임에 비하여 「金剛壽命經」·「五字瑜伽神呪經」·「虛空藏菩薩經」는 17자로 부분에 따라 달리 배열하였다. 「(源信)枕雙紙」는 횡본으로 10자이다. 이에 비하여 불서류 및 기타류는 모두 17자로 균일하다.

(6) 小註 형식

「一切經」는 쌍행 형식으로 4종이 있으며, 5종은 小註가 없다. 불서류 및 기타류는 모두 쌍행 형식이다.

(7) 판구 형식

「法苑珠林」과 「(源信)枕雙紙」, 불서류 및 기타류는 모두 대흑구를 취하고 있다.

(8) 魚尾 형식

「一切經」는 어미가 없다. 「法苑珠林」과 「(源信)枕雙紙」는 불서류 및 기타류와 같이 흑구와 연결된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를 취하고 있다.²⁰⁾ 예외적으로 상하내향흑쌍어미가 간혹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摩訶止觀科解」·「(源信)枕雙紙」), 형식이 통일되지 않고 상하내향사엽화문어미나 흑어미 또는 상하의 어미 문양이 같지 않은 등 다양하게 표현된 경우가 있다(「法苑珠林」).

(9) 기타 특징

「一切經」의 본문은 22행 또는 23행으로 조판하였다. 각 판의 본문 제1행 앞에 小字로 판심 역할을 하는 부분인 “판심제 장차 함차”가 대체로 인출되어 있으나, 절첩본으로 제본할 때 앞장의 뒤에 붙여져 있어서 노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뒷면을 살펴보면 반체자로 투영되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제1장은 없는 경우가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不增不減經」(<서영> 참조)·「舍衛國王夢見十事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大藏目錄」는 함차가 없다.

「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의 경우, 본문에 나타난

20) 「四部錄」는 활자는 宗存版과 완전 일치하는데, 판심의 어미가 여타 宗存版과 다르다. 齋藤彦松, “宗存版の研究,” 26.

함차는 “敢”이다. 그런데 판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비록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의 제2장 판심에는 “讚”으로, 제4장에는 “敢讚”으로, 제5장에는 “讚”으로, 제6장 이하는 모두 “張”으로 되어 있다.

판심이 있는 7종은 판구와 어미 및 양측 계선이 일체식으로 되어있다. 판심제는 모두 小字인데 대체로 약서명을 사용하되 표현 형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있고(『顯戒論』), 부분적으로 별서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源信)枕雙紙』의 “慧心釋”). 권차 표현 형식(『法苑珠林』) 또는 장차 표현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摩訶止觀科解』 권1之1의 서문 제3·5엽, 권1之2의 본문 제2·5·8엽은 숫자 뒤에 “張”을 식자하기도 하였다.

음각 활자를 사용하고 있는 판본은 3종이 있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일부 판본에서 90도, 180도 전도된 문자가 있고, 수요가 많은 『顯戒論』 등 일부 판본은 정정판 등 복수의 판본이 있기도 하고, 조선식 5침안정법을 4針眼訂本으로 개장하기도 하였다.

宗存版 『一切經』의 저본은 어느 판본인가? 宗存版 『一切經』에는 상하 변란이 없고 『高麗大藏經』에는 있는 차이점이 있지만, 1. 『大藏目錄』가 『高麗大藏經』의 완전한 복각인 점, 2. 函次의 천자문이 양자가 일치하는 점, 3. 간기도 『高麗大藏經』을 모방한 점 등을 보면 『高麗大藏經』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지를 황염색하였는데, 각 장의 농도가 약간씩 달라서 일시에 염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특히 진하게 황염색한 경우도 있다(『大藏目錄』).

江戸 中期 이후 慈眼寺의 堯辯이 宗存版 『大荒神施與福德圓滿陀羅尼經』를 복각하였는데, 宗存版의 원 간기인 “元和六^{庚申}年 十二月日, 伊勢大神宮高日山, 常明寺宗存”도 그대로 복각되어 있다.

3. 宗存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宗存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자양이 일치하지 않으나 매우 유사한 수준의 경우가 있다(『大藏目錄』).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떨어지거나 부조화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舍衛國王夢見十事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源信)枕雙紙』·『顯戒論』). 그러면서 소박한 세련미를 보이기도 한다(『不增不減經』).

자양이 매우 차이가 나서 세련도가 제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正因果集』).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보이거나, 목리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새로 조성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大藏目錄』).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간혹 보이면서, 서체가 둥근 형태이므로 필획 윤곽에서는 쉽게 보인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源信)枕雙紙』). 동시에 간혹 필획 윤곽에서 도각의 흔적이 역력한 경우도 섞여있다(『法苑珠林』·『不增不減經』).

도각 흔적과 목리가 동시에 쉽게 보인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顯戒論』).

도각의 흔적이 역력하다. 아직 필획 윤곽이 뚜렷하고 도각 흔적이 필획 윤곽에 적지 않게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새로 조성한 후 얼마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正因果集』).

3.1.3 木理의 有無

목리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大藏目錄』), 아주 드물게 보인다. 이는 목색이 진한 이유도 있지만, 목질이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여 새로 조성한 활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색이 금속 분위기를 적지 않게 보이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舍衛國王夢見十事經』).

작은 목리가 시종 보이고, 드물게는 약간 큰 목리도 보인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목색이 진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적당한 곳에서는 쉽게 보인다(『(源信)枕雙紙』).

굵은 필획에서 목리가 역력한 점으로 보아 오래 사용한 듯하다(『不增不減經』·『正因果集』). 일부 윤곽이 퇴화하고 일부 서체도 퇴화한 점에서 제법 사용한 활자이다(『顯戒論』).

문자 상의 목리가 한결같이 가로로 나 있는 점에서 목판에 조각한 후 날개로 분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3.2.2 文字의 美感

필획이 굵은 대형 활자로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필획도 굵고 균정하여 강건하고 후박한 서체의 심미감을 표현하고 있다(『大藏目錄』).

서체의 균형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부조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부조화 문자도 간혹 보인다. 필획 윤곽에 도각의 흔적으로 인하여 균정하거나 매끈하지 못하여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편이다. 다듬지 않아 가공되지 않은 듯하지만, 필획이 굵어서 힘 있고 질박한 해서체의 심미감을 살리고 있다. 기술이 고명한 수준은 아니다.(『大藏目錄』 이외의 13종).

다소 부드러운 서체의 문자가 있기도 하고(『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나무망치로 두드려서 필획을 조각한 것처럼 다소 투박한 문자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正因果集』). 필획의 굵기가 고르지 못한 반면에 필획 시작 부분의 둔탁한 빼침 등 독특한 서체미를 보이기도 한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윤곽이 약간 퇴화된 문자가 간혹 보이는 점에서 제법 사용한 활자인 듯하다. 크고 작은 목리가 혼재하여 심미감을 논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源信)枕雙紙』).

3.3 기타: 例外的인 活字

간혹 필획의 굵기가 현격히 얇은 문자가 보이는데, 보자인 듯하다(『大藏目錄』·『法苑珠林』·『(源信)枕雙紙』).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고명한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종(『大藏目錄』·『不增不減經』)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4. 宗存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조판에 특별히 주의한 듯 매우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大藏目錄』).

대부분의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면서도 미세한 치우침이 보이는 정도이다. 빼뚫어진 정도가 다소 많거나 구불구불한 경우가 있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正因果集』·『顯戒論』).

『老女人經』의 제2엽 제10행, 『月光童子經』의 제1엽 제18행, 제6엽 제12행, 제7엽 제2·7·15·18행, 제8엽 제14행, 제9엽 제5·6행, 제11엽 제12행, 『申日兒本經』의 제1엽 제13~19행, 제2엽 제5행 등은 1자를 더 배열하여 15자이다.

4.1.2 橫列

매행 10자를 배열한 횡본인 『(源信)枕雙紙』는 매우 가지런하다. 배열 활자의 수가 적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대부분의 판본은 대체로 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가지런하면서도 다소의 굴곡이 보인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申日兒本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 다만 간혹 심한 굴곡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顯戒論』).

小字를 병용한 곳에서는 활자의 크기가 다르고 공백이 있어서 다소의 굴곡이 보인다(『大藏目錄』·『舍衛國王夢見十事經』).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빼뚫어진 정도가 경미하여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자로 보이는 경우에만 약간 보인다(『大藏目錄』).

약간 빼뚫어진 정도가 다소 보이거나(『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源信)枕雙紙』·『顯戒論』),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申日兒本經』·『月

光童子經」·「正因果集」).

빼뿔어진 정도가 두드러진 경우는 엽 당 1~3자 정도인 경우도(「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源信)枕雙紙」), 5~8자 정도인 경우도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顯戒論」). 10여자 이상 정도로 다소 심하여 판면이 정연하지 못하기도 하고(「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2~3자 또는 12~13자 등으로 큰 편차가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판면이 질서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法苑珠林」).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거나(「大藏目錄」), 드문 경우가 있는데 15자를 성기게 심은 결과로 보인다(「老女人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1~3자 정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正因果集」·「(源信)枕雙紙」·「顯戒論」), 대자에서 경중이 섞여 간혹 또는 자주 보이기도 하고(「法苑珠林」), 적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17자 행에서 조밀하게 심은 활자의 자면의 높이가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또는 자주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도 있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4.3.2 印出面의 水平

宗存版의 묵색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묵색의 농담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구분이 어려우나, 묵관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균정하다. 다만 소자에서 약간의 농담차이가 나타나 진한 문자가 간혹 보인다. 육면이 균정하고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大藏目錄」). 간혹 연한 문자가 보이기도 하는데 광곽도 대체로 잘 인출되고 있다(「(源信)枕雙紙」).

묵색의 농담은 약간의 차이가 보이거나(「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正因果集」), 균일한 엽과 동시에 차이나는 엽이 혼재한 경우가 있다(「舍衛國王夢見十事經」). 하변 광곽 내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았다(「正因果集」).

묵관에 약간 뒤질 만큼 묵색의 농담이 균일한 경우도 보이지만, 대체로는 약간 또는 제법 편차가 보인다. 광곽은 잘 인출된 편이나, 모서리와 좌우변은 다소 소홀히 마감하여 인출되지 않은 곳이

간혹 있다(『法苑珠林』). 광곽 내선이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고, 하면 광곽의 내측 가는 선과 외측 굵은 선이 바뀐 경우도 있다(『顯戒論』 卷중상 제23엽).

활자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묵색의 농담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광곽 내선의 일부가 활자보다 낮아서 인출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에 네 꼭지점이 제법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벌어진 정도가 2~3mm이면서 광곽 굵기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法苑珠林』). 벌어진 정도는 2~4mm인데 하면 양 끝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法華玄義科文』), 하면용 광곽 하나를 가운데 홈을 파서 하면 양 끝이 붙어 있거나(『法華文句科解』), 하면 광곽 양 끝을 재단하여 끊어져 있으나, 절단면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광곽에 홈을 판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摩訶止觀科解』).

벌어진 정도가 4~6mm로 제법 크기도 하고(『正因果集』), 모서리를 맞추지 않아서 6~9mm로 다소 크기도 하다(『顯戒論』).

상하면 광곽의 양끝이 꼭지점까지 닿지 않고 1행 폭 이상 짧아서 결구가 20~35mm 정도로 매우 큰 경우가 있다. 이는 광곽 상하에 광곽의 기능을 대신하는 버팀목이 있어서 광곽이 짧아도 조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源信)枕雙紙』).

조립식 광곽에 조임식 조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광곽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상하엽 각각 1~3행, 6행, 8~9행 위치의 광곽 상방 11~16mm 또는 18~22mm에 가로*세로 = 7~13*9~18mm 크기의 고정용 나무못(썰기) 6개를 박아서 광곽을 조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변도 비슷하게 고정하였다(『正因果集』). 상변 상방 6~15mm, 18~22mm, 25~28mm의 위치에 6*19mm의 나무못으로 고정하기도 하였다(『顯戒論』). 4~5행 위치의 상변 상방 21mm에 가로*세로 = 8*14mm 크기의 고정용 나무못을 박아서 조인 경우도 있고(『法苑珠林』), 상변 상방 22~23mm에 고정못으로 조인 경우도 있다(『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

하변은 하방 15mm의 위치에 상당히 긴 형태의 고정목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顯戒論』).

4.5 기타

4.5.1 界線 격자

대부분 판본의 계선 폭은 3~4mm인데(『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法華文句科

解」·「法華玄義科文」·「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顯戒論」), 「法苑珠林」은 그 편차가 심하여 2.2~4mm를 보인다.

행폭은 14.5mm(「顯戒論」), 17mm(「法華文句科解」), 18.2mm(「法苑珠林」) 등이다.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일부 판본에서 90도, 180도 전도된 문자가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²¹⁾ 다만 실사한 판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4.5.3 校正의 失手

「摩訶止觀科解」 권1지2 제2엽의 장차가 탈락하여 없다.

「法苑珠林」 권2 제25엽의 판심에는 장차가 모두 탈락하였고, 권6 제1엽~제3엽의 판심 권차는 “九”로, 권6 제46엽의 장차에는 “四十”이 탈락하여 “六”만 인출되어 있다.

판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비록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의 제2장과 제5장, 「申日兒本經」의 제2장 장차의 일부인 “張”이 “長”으로 되어 있다.

4.5.4 흑구의 문양

상하 흑구에 간혹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 문양 또는 여러 개의 “X” 문양을 음각한 경우가 있다(「法華文句科解」·「正因果集」).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大藏目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21)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暦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27.

5. 宗存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의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다(『大藏目錄』·『法苑珠林』·『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正因果集』·『(源信)枕雙紙』·『顯戒論』).

묵색이 아주 진한 엽부터 연한 엽까지 혼재하여 적지 않은 농담차가 보인다. 전반적인 묵색이 고르지 못하고 편차가 심하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특히 책지가 두꺼운 관계로 착묵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5.1.2 葉 간의 濃淡差

엽에 따라 약간 연하거나(卷下 제5엽과 제27엽) 진한 엽이 다소 있으나, 대체로 균일하다(『大藏目錄』).

대부분의 판본이 간혹 진하거나 연한 엽이 있어서 약간의 농담차가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摩訶止觀科解』·『法苑珠林』·『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舍衛國王夢見十事經』·『正因果集』·『(源信)枕雙紙』·『顯戒論』).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번짐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大藏目錄』·『不增不減經』).

대부분의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묵색이 연한 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엽에서 경중이 혼재한 번짐 현상을 볼 수 있다. 판면 전체가 다소 번진 엽도 있고(『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필획 간에 묵즙이 번진 경우가 드물게 보이기도 하고(『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源信)枕雙紙』), 그러면서 반대로 착묵이 안 된 문자가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도 있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舍衛國王夢見十事經』).

일부 연한 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엽에서 부분 번짐이 적지 않게 보인다. 정도 차이도 매우 심하다. 거의 엽 전체가 번진 경우도 있다(『法苑珠林』·『正因果集』·『顯戒論』).

5.2.2 墨汁의 쏠림

쏠림 현상이 거의 없거나(『大藏目錄』), 드물게 보인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

묵색이 균일하지 못하고 일부 문자에서도 일부 필획에 묵즙이 쏠려 있는 현상이 적지 않은 반면에 착묵이 잘 안 된 곳도 있어서 판면이 안정되지 못한 수준이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

전반적으로 묵즙이 매우 과하여 묵즙 투성으로 보일 만큼 번짐·쏠림·잡묵·측면 반영 등이 거의 모든 엽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면서 정도도 심하다. 묵정도 적지 않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착묵이 부족하여 두 번째 인출한 것처럼 연한 곳이 혼재하고 있다. 조각술을 상쇄하고 있다(『法苑珠林』).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5.3 雜痕과 雜墨

잡묵은 소량이 드물게 보이거나(『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不增不減經』·『舍衛國王夢見十事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대소가 간혹 보인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正因果集』·『(源信)枕雙紙』·『顯戒論』).

묵색이 진한 만큼 대소량이 시종 보이기도 한다(『法苑珠林』).

5.4 二重 印出

이중 인출 현상이 없거나(『法苑珠林』·『(源信)枕雙紙』),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인출의 방향과 강도를 살피기 위하여는 책지의 문자가 반영되어 있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배면을 살피면 전반적으로 먹물이 밀린 자국이 상하로 나 있어서 밀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는 책지가 두꺼워서 힘껏 인출한 결과로 보인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大藏目錄』·『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

5.5.2 印出의 強度

배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요철이 형성되면서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된 현상이 나타난다. 묵집이 밀린 자국이 없는 부분도 힘껏 밀어서 요철 현상과 함께 필획의 측면 반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굵고 진하게 인출된 번진 문자가 적지 않다(『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大藏目錄』·『不增不減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

힘껏 인출하여 측면 반영 결과 필획이 굵고 진하여 번진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정도도 심하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源信)枕雙紙』).

5.6 着墨의 均整度

전체적으로 착묵 상태가 약간 과하여 진한 문자를 거의 매 엽에서 볼 수 있고(『顯戒論』), 필획의 측면이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윤곽이 잘 인출된 셈이다(『(源信)枕雙紙』).

반면에 전반적인 묵색은 진하면서도, 착묵이 다소 부족하여 균일하지 못하고 문자가 연하거나 일부 인출이 안 된 문자가 섞여 있어서 편차가 보이기도 하고(『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不增不減經』), 착묵이 불완전하여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는 경우가 있다(『舍衛國王夢見十事經』).

착묵이 잘 안 되어 한번 칠하고 두 번 인출한 듯한 엽도 있다. 한 엽에서도 진하고 연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正因果集』).

전반적인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여 점선 현상도 보이고,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보인다. 거의 묵정이 있기도 한다(『法苑珠林』).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미숙하여 활자의 제작기술이나 조판기술에 비하여 낮은 결과, 완성된 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大藏目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상급 2종(『不增不減經』·『(源信)枕雙紙』), 중중급 3종(『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중하급 8종(『老女人經』·『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法苑珠林』·『舍衛國王夢見十事經』·『申日兒本經』·『月光童子經』·『正因果集』·『顯戒論』)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하급이다.

6. 宗存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宗存이 『一切經』 간행을 시작한 첫해에 인출한 『大藏目錄』의 기술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판본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인 宗存版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중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宗存版이란 천태승 宗存이 京都 北野 經王堂 常明寺에서 慶長 18년(1613)부터 寬永 元年까지의 12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140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一切經』와 불서류 및 기타류로 대별된다. 『法苑珠林』을 제외한 『一切經』는 광곽, 계선, 판심이 없다. 절첩장으로 매엽 5행 14·17·19자 등이다. 『法苑珠林』을 포함한 불서류 및 기타류는 선장본으로 四周單邊, 무계인데, 특이한 경우로 상변과 좌우변란은 單邊, 하변은 쌍변인 경우가 있다. 9~10행 17字, 예외적으로 10행 10자의 횡본이 있다. 小註雙行, 大黑口, 상하내향3葉花紋雙魚尾, 一切式 版心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살리지 못한 수준이다. 보각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빼뚫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차이가 보인다. 광곽 폭지점이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적지 않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5) 宗存이 첫째에 인출한 『大藏目錄』의 기술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 宮內廳書陵部編. 『(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増加)』, 東京: 宮內廳 書陵部, 1952(上), 1953(下), 1968(増加).
-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大谷大學圖書館編. 『大谷大學圖書館所藏貴重書善本圖錄: 佛書篇』. 京都: 大谷大學, 1998.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 1986, 1993.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錄: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67.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錄』. 東京: 弘文莊, 1972.
- 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錄』.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56.
-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錄』.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錄: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錄: 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 1951, 1960, 1998.

2. 저술·논문류

藤堂祐範. 『浄土教古活字版圖録』. 京都: 藤堂祐範, 1934.

三井田妙久. “宗存版木活字について.” 『叡山學院研究紀要』 23(2001. 3). 67-83.

是澤恭三. “常明寺宗存出版事業.” 『書誌學月報』 17(1984. 10).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暦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滋賀縣教育委員會: 大津市, 2000.

齋藤彦松. “宗存版の研究.” 『同志社大學圖書館學會』 3(1960. 12). 5-26.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重要文化財審議委員會. “歷史資料の部. 重要文化財議案説明書.” 2000, 10.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서영> 『不增不減經』 (5행 14자 = 21.38*9.1cm)

佛說不增不減經

牟

元魏北印度三藏菩提流支譯

如是我聞一時婆伽婆住王舍城耆闍崛山中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諸菩薩摩訶薩無量無邊不可稱計

尔時慧命舍利弗於大衆中即從坐起前至佛所到已頂禮佛足退坐一面合掌白佛言世尊一切衆生從無始世來周旋六道往來三界於四生